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방송기술발전 좌담회

방송음향부문



1992년 5/6월호, 통권 제 24호

표지설명 : 남산종합송신탑

해발 479.7M ANT 높이 236.7M의 방송송신탑으로서 KBS, MBC, SBS, EBS의 TV ANT와 PBC, BBS, TBS의 FM 방송용 ANT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통신용 ANT가 부착되어 있는 종합송신탑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 방송사 송신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남산타워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 표지 컷으로 실었다.

글을 수록하며

1992년 5월 30일 발행된 '방송과기술'

방송기술의 틀을 벗어나 방송이라는 더 큰 덩어리 속으로 융화되기 위한 첫걸음을 뒀습니다.

'放送技術人(JOURNAL OF BROADCAST ENGINEER)'이라는 제호를 '방송과기술'로 변경하였네요.

영문 제목은 아직 보이지 않는군요.

기사는 방송기술발전을 위한 좌담회 내용입니다.

고민의 내용은 현재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도 선배님들처럼 같이 모여서 방송기술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편집자주-

제5대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는 현업인들과 업체와 학계 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면서 그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기술좌담회를 개최, 한국방송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발전상을 그려볼 계획이다. 한국의 방송사는 라디오방송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방송음향에 관한 논의는 과거의 점검과 미래의 진단을 함께 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더욱이 방송기술인 상호 간의 교류 및 관련 업체와의 의견교환이 전무한 현시점에서 볼 때 이번 좌담회는 우리 모두에게 값진 자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방송기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편집자주 -

참석자 : 조태오 (KBS)

김충남 (MBC)

조학동 (MBC)

연병성 (EBS)

이성룡 (EBS)

오상민 (CBS)

조병령 (CBS)

송진석 (TBS)

장기선 (동서전자)

강정훈 (대산물산)

사회자 : 김 홍 련(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사진·정리 : 이 경 미(연합회기자)

일시 : 1992년 5월 20일 15 : 00 - 17 : 00

장소 : 연합회 사무실

사회자 | 그동안 상호연관 관계가 부족해 연합회나 관련 업계, 학교, 연구소, 현업인 등이 융화되지 못했고 그만큼 한국방송기술의 발전을 늦추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좌담회를 통해 서로가 느끼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들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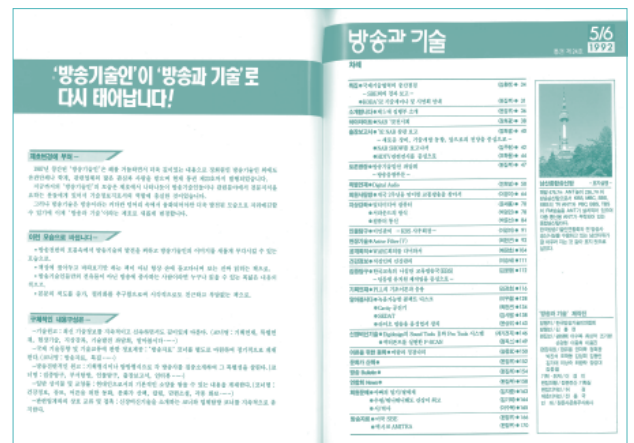
오늘은 방송음향을 주제로 각 방송사에서 방송음향 및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현업인들과 관련 업체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현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김) | 제가 음향을 처음 시작한 것은 60년대였습니다. 60년대 초에는 장비가 형편없었고, 악세사리 장비는 전무했습니다. 그때는 클래식 쪽의 녹음은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경음악쪽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비시스템, 예코 등의 악세사리 장비가 상당히 좋아졌고, 또 악기별로 메모리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매우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세사리 장비에 있어서 국산제품은 지금도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신생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TBS의 장비 사정이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교육방송의 경우도 설명해 주십시오.

송진석(T) | 현업 장비가 도입되면 특성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특성의 장비 데이터는 좋았는데 방송 후 6, 7개월 동안은 고전을 했습니다. 장비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문제점으로는 아테뉴에이터(ATTENUATOR), 스위치보드, 패더 등 부품의 신뢰도 부족과 PCB 납땜이 견고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장비사고를 초래했습니다. 국산장비 중 스위치부분의 잦은 사고도 역시 보완되어야 되겠습니다.

연병성(E) | 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육방송은 2년 전에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독립해 새롭게 정착해 나가고 있는데 초창기의 콘솔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 J사가 만든 콘솔, 스위치 등을 사용했고 최근엔 D사의 콘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선 규모가 큰 프로그램들보다는 주로 어학프로그램이 상당수 차지합니다.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녹음기와 콘솔인데 스위



치의 접촉 불량이나 모니터에 필요 이상의 스위치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성룡(E) |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부품들은 모두 일본제품을 한국에서 조립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PCB 납땜이 엉망인 제품이 들어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턴테이블 고장 시에도 수리하는 문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확동(M) | 스튜디오는 스위치의 공신력이 많이 좌우하는데 이 스위치의 제어폭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악세사리 장비가 없어도 제어폭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선(동) | 한국 방송 음향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
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현업인들이 말씀해
주시는 방송장비 사용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어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저희가 콘솔을 제작할 땐 외국 장비의 단순한 복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에선 제품생산 시에 로봇이 납땜뿐만이 아니라 부속조립까지 해내기 때문에 실수가 거의 없고 정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의 부족으로 그러한 기술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전자는 최근 수년간의 기술개발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단순한 외제의 복제가 아닌 독자적인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령(C) | 제품에 있어서 내구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엔지니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PD나 리포터들도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더 심한 점은 있으나 좀 더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품에 필요 이상의 기능들이 많아서 오히려 내구성이 더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 (중략) -----

사회자 | 이번에는 A/S 조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훈(대) | MBC 본사 및 지방 계열사에 많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대산은 매년 2회씩 해외연수를 실시, A/S를 확실히 해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활용 지식들을 빨리 습득할 수 있게끔 해야하므로 외국에 내보내서 직접 배워오게 하고 있습니다. A/S는 두 달에 한 번씩 지방 계열사 순회 서비스를 통해 보완하고 있고, 지금은 엔지니어분들에게 충분한 기술 제공을 하고 있으며, 기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A/S에 있어선 저희 대산에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믹싱 콘솔의 경우 A/S를 몇 년이나 무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강정훈(대) | A/S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기는 1년~2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보증계약을 통해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대부분 무상으로 A/S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증 계약을 해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편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선(동) | 국산장비나 국내업체에 대한 A/S 보증 계약에 대한 관리적인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것만이 장비의 발전을 꾀할 수 있고, 국내 관련 업자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방송장비 국산화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현업하시는 분들이 A/S 부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충남(M) | 기계를 10년 정도 사용한 후에는 새로운 장비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체계 마련도 안 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조태오(K) | 저희 회사 경우는 회사 자체 내의 구매 제도가 무조건 최저가제, 구매 공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한데서 덤핑으로 들어와 제품 부실 및 국산제품 기피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제도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콘솔뿐 아니라 모든 장비에 적용되는 문제로서 모듈식으로 뺏다 끼었다 하는 장비 중에서 열 번에 한 번 겨우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를 다룸에 있어서 엔지니어조차 다루기가 힘들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커넥터를 멀티케이블에 연결하는 외국의 방법도 접촉불량을 방지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상민(C) | 오디오 믹서의 문제발생 중에 생방송 시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과 그 책임이 퓌토상 엔지니어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결국

오늘날의 국산 기피 현상을 자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계속적인 부품공급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신속한 A/S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중략) ----

사회자 | 국내 제조업체들은 외국업체들에 비해 기업홍보 및 제품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국내 업체 간의 연대감이나 가격보호책도 실질적으로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출혈 경쟁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에 따른 어려움만 더욱 증가해 국내업체의 존폐위기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제조사들 간의 상호협조체제를 하루빨리 구축,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연합회를 주축으로 국산방송장비 및 기술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방송음향뿐 아니라 방송기술 전반에 있어서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